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10월호



버림과 따름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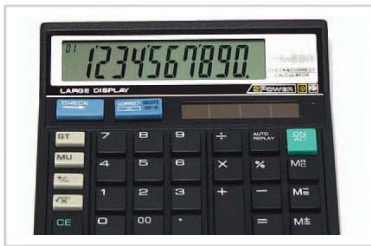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기쁨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느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세속의 계산법〉



〈이태석 신부님 유품〉



〈무소유〉



〈버스 안의 수녀님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까지 읽어 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 삶속에서 버려야 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서랍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서랍 속을 통째로 휴지통에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선별해서 제자리에 옮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욕심, 교만,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가득 쌓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법은

물질적 무소유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리고 정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6번 '사랑의 송가'를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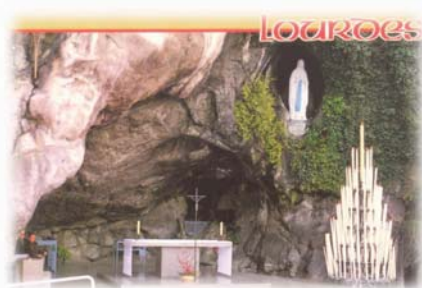
10월 묵주기도 성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중에서

성모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를테면 성모송의 축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때때로 급하게 성모송을 외우다 보면 이를 놓치기 쉬우며, 성모송과 함께 관상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관계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의미 있고 효과 있게 바치는 표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비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세주의 삶의 여러 순간들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성모송의 반복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화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묵상을 받쳐 주는 도구입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시편 36:9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모님의 이름과 함께 되풀이하여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동화의 여정이 됩니다.

성모송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기며 드리는 간절한 호소는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독특한 관계, 곧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 관계에서 힘을 얻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있는...

- 안의선교본당 안의성당 -

- 이상분(울리에따) : 안의선교본당 구역분과장-

안녕하세요. 안의소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안의선교본당 안의성당에 속해 있습니다. 안의선교본당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려야겠네요. 저희 본당은 거창소속의 위천공소와 함양소속의 안의공소가 한데 묶여져 생겨났습니다. 두 공소는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본당을 이루고 있기에 호칭도 안의선교본당 안의성당, 안의선교본당 위천성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사는 각각 드리고 대축일미사 때와 행사 때만 두 성당이 모두 모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두 집 살림 돌보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시지요. 2008년 12월 29일 본당으로 승격되어 2009년 1월 9일 첫 신부님이 부임하셨으니 이제 2년하고도 반을 훌쩍 넘겼네요.

성당에는 13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 초등학생들만 모아 재미있는 주일학교를 운영합니다. 미사 전에 모여 기도문을 쓰고 외운 뒤 선생님이 마련한 즐거운 놀이를 하고 미사 후 점심과 간식을 먹지요. 또 어른들에게는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하는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엔 청소를 하고 마지막 주일은 함께 밥을 먹는답니다. 원래는 청소와 식사하기를 같이 하였던 것인데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밥을 같이 못 먹는 사람이 많아 따로 하게 되었지요.

안의성당에는 안의와 서하 두 개의 소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안의소공동체는 평균 12명 내외의 반원들이 참석하여 복음나누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소시절부터 복음나누기 7단계

를 이용하여 모임을 해오고 있었는데 서투르지만 책자에 쓰여진 순서대로 복음나누기를 하며 공소회장님을 중심축 삼아 신앙을 지켜나오고 있었지요. 본당이 된 지금은 더욱 열심히 여름 손님맞이로 모든 집이 바쁜 8월을 제외하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교우의 집에서 말씀나누기를 하고 2부 행사로 생활나누기(?)를 한답니다.

신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6,70대 어르신들은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인지라 이론적인 지식은 가난할지 몰라도 그 신앙심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2부 행사시간에 간단히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요즘 사는 근황들과 어르신들께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들을 함께 갖지요. 서로의 가정에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일은 없는지 챙겨보고, 이웃 중에 권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함께 가보기로 약속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안의는 오랜 전통이 고수되는 지역인지라 전교하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은 많은 연세에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쏠살같이 달려가십니다. 하긴 그래도 신자 만들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도 요즘 귀농인구의 증가로 새 신자들이 생겨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소시절부터 안의를 지켜온 어르신들에겐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젊은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본딅니다. 무릎을 맞대고 하느님말씀을 같이 읽고 경험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의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나누는 이 시간들을 함께 함으로써 어르신들과 귀농한 젊은 사람들이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좀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의소공동체 모임〉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